

▶ 2009년 06월 27일 (토) 00:24

### 일본 영화제작자 '유미코 마쓰다'

27일 일본 시마네 현 마츠에 시에서는 나고야에서 현지 올 로케한 영화 ‘성(城)을 축조 하자!’ 라는 시사회가 열린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제작된 이 영화는 (주)코마츠 전기 등 많은 기업들이 후원, 뜻있는 성공을 이루어냈다는 것이 현지의 평이다.

시사회를 앞두고 제작자인 유미코 마쓰다(사진 왼편)와 일본 스타급 여배우 도모코 푸지타(사진 오른편)가 지역사회와의 간담회에 참석, 웃음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한편, 유미코 제작자는 현재 MBC로부터 고대 신라.가야와 일본의 문화교류에 대한 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제안 받았다고 말했다.



**One focused Japanese movie, with the tile of 'Let's construct the castle' just have a preview of cinema in Matsue city, Japan.**

**According to local source, this movie was planned for revitalization of Matsue city's local economy, and coming to pass for earnest dream that community has hoped.**

**On 26 June in the evening saw two smiled VIP gustes in the friendly talks with community.**

**One(The left)is a Movie's producer Yumiko Masuda. And the other is Japanese movie star, Tomoko Jujita.**

**Especially Yumiko refered, She will produce jointly with Korea's MBC for a documentary film about acient culture between Korea (Shilla Dynasty) and Japan.**

국제부 이명근 기자/일본 현지취재